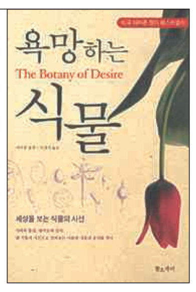
북스

Books

만약 정원의 화초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면?

욕망하는 식물 마이클 폴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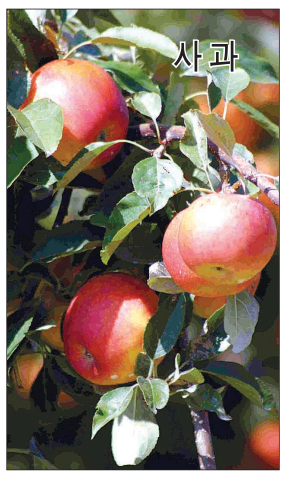
'우리는 작물을 심고 가꿔 수확한다.' 그런데 이 명제는 과연 맞는 말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옳지만, 주체를 작물로 바꿔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혹시 작물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다면 말이다.

'욕망하는 식물'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폴란은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식물도 자기 종을 보다 많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인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사회사, 자연사, 신문, 전기문, 신화, 철학 등 장르를 불문하고 종횡무진한다.

책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출간된 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2002년에는 국내에 '욕망의 식물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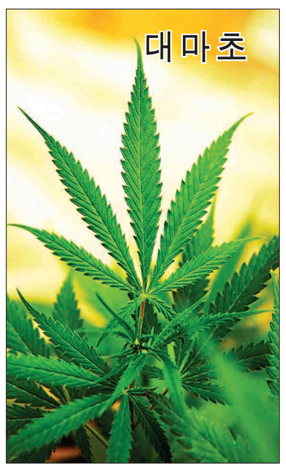
저자가 책을 쓴 것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다 꽃의 주위를 윙윙거리던 꿀벌을 보고난 뒤다. 꿀벌은 꽃의 꿀을 빨아먹지만, 사실 꽃가루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꽃이 꿀벌을 유혹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인간도 꿀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이같은 식물의 욕망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사과, 튤립, 대마초, 감자 등 네 가지를 택했다. 이들 식물은 각각 달콤함, 아름다움, 황홀함, 지배력 등으로 인간에게 '길들여진' 대표 식물이다. 저자가 이 네 가지를 선택한 다른 이유는 자신이 직접 정원에서 길러봤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숲에서 상인들에 발견돼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진 사과는 미국을 정복한 18세기 개척자들에게 정복의 징표와도 같았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사과는 설탕이 귀하던 시절 달콤함을 선사하며 인간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저자는 야생의 사과가 황금기를 누리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 때 큰 저택 한 채 가격과 맞먹었다는 튤립은 어떤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자극하고 선사했던 튤립은 인간의 변덕(?)에 의해 부침을 거듭했다. 저자는 튤립이 부침한 역사를 따라가면서 꽃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을 열광시켰고, 인간의 변덕은 어떻게 꽃의 변화에 작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대마초는 옷감 재료로 사용했던 식물이다. 불법적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은 가장 비싼 식물 중 하나가 됐다.

저자는 대마초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단 2~3%에 불과했던 향정신성물질(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을 20%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한다. 단속이 심해진 뒤 실내로 옮겨졌던 대마초는 할로겐 전구 빛 아래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전 세계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맥도널드의 프렌치프라이는 감자의 지배욕을 보여주는 사례다. 17세기 척박한 땅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감자의 지배력은 100년도 되기 전에 세계로 퍼진다. 미끈한 프렌치프라이를 위해 '러셋 버뱅크'라는 감자 품종만 재배되도록 강요받은 감자는 독한 농약 살포로 인간을 위협하는 폐해를 경험해야 했다.

저자는 식물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 책을 통해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길가의 사과나무나 탁자 위의 튤립 한 송이도 낯설지 않게 봤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얘기했다.

〈황소자리·1만4천9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원호씨 신작소설 '챔피언' 3권 펴내

'밤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작가 이원호씨가 신작소설을 내놓았다.

'챔피언'(전 3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못하는 스포츠, 권투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주인공을 통해 치열하게 도전하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려 했다.

생후 열흘도 안 돼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입양한 부모마저 세상을 등지는 등 불행한 삶을 살던 장성기는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기 위해 권투에 몰입한다. 이후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주인공의 삶은 운동 경기의 승리이기 이전에 인생에서의 승리로 읽힌다.

〈팬덤·각 권 9천500원〉

詩人들의 詩想 반추해보는 수필 여행

그리운 것은 문득 온다 정끝별 지음

'나에게도 집이란 것이 있다면/미황사 감로다실 옆의 단풍나무를 지나/(중략)/무명저고리에 행주치마 같은/두 칸짜리 해우소/꼭 고만한 집이었으면 좋겠다'(김태정 작 '동백꽃 피는 해우소')

나주 출신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정끝별(명지대 교수)씨는 해남 미황사에 도착하자 마자 김 시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해우소'부터 찾았다.

현대화된 '화장실'만 있을 뿐 '행주치마'같은 해우소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정씨는 장마구름 속 애처롭게 저물어 가던 미황사의 노을과 단청을 들이지 않은 소박한 나뭇결에 마음을 내주고 돌아왔다.

이어 해남의 시맥(詩脈)을 찾아 김남주와 고정희의 생가를 찾았고 그녀의 여행은 땅끝마을까지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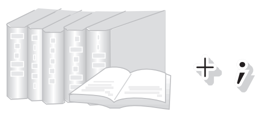
정씨가 펴낸 '그리운 건 언제나 문득 온다'는 마음을 울리는 시와 시인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행 산문집이다.

김춘수의 시 '이중섭' 연작을 기억하며 떠난 곳은 제주도 서귀포다. 네 식구가 몸 부대끼며 올망졸망 살았을 한평 반짜리 쪽방과 이중섭 미술관을 둘러본 정씨는 그곳에서 이중섭의 뜨거운 예술혼을 생각하고 '국가도 이데올로기도 언어도 가난도 무릅쓴 이중섭의 사랑'을 묘사한 김춘수 시인의 작품을 가슴에 새긴다.

또 시 '뻘'을 통해 '말랑 말랑한 힘'을 이야기하는 함민복 시인의 흔적을 찾아 떠난 강화도 여행에서는 마을 전체가 유적지인 강화도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시인이 예찬하는 '뻘'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마음을 열어둔다.

그밖에 '봄날은 간다'를 읊조리며 떠난 충남 서천의 춘장대, 목포 출신 시인 노향림의 시와 함께 한 신안군 압해도, 장석남의 '경주 황룡사터 생각'과 나희덕의 '탑이 기러기처럼 많은'이 데려간 경주 황룡사터, 안도현의 '화암사 깨끗한 개 두마리'의 흔적을 찾아 떠난 전주 화암사까지 모두 14곳으로 그녀의 여행은 이어진다. 〈이레·1만1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로마 황제의 발견='서양-위대한 창조자들의 역사'를 쓴 역사학자 이바르 리스너가 치밀한 고증과 상상력으로 로마 황제들을 되살려놓았다. 클레오파트라, 네로, 하드리아누스, 옥타비아누스 등 로마를 지배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곧 로마의 역사였다. 〈살림·1만5천원〉

▲흔들리거나 반짝이는=음악평론가 김진묵의 에세이. 고등학교 시절 음악감상실에서 라벨의 '볼레로'를 들으며 받았던 충격으로 40년 넘게 음악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저자의 음악에 대한 추억과 단상이 담겨 있다. 유년기에서 현재까지 시간 순으로 구분돼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정신세계사·1만원〉

▲세밀화로 그린 양서파충류 도감=세밀화가 이주용씨가 그렸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양서류 21종, 파충류 31종 중 각각 16종, 20종을 담았다. 이씨는 4년 동안 양서류와 파충류를 찾아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샅샅이 뒤졌다. 〈보리·3만원〉

▲피아니시모 피아니시모='냉정과 열정 사이'의 작가 츠지 히토나리의 최신작. 도쿄의 한 중학교를 배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소년과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소녀가 감정이 없는 '회색' 세상의 공포를 이겨나간다. 〈소담출판사·1만원〉

▲나는 문이다='양비귀꽃 머리에 꽂고'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문정희(고려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의 시집. 시와 사랑에 대한 자각을 특유의 일상적이고도 유연한 시어로 표현한 시 82편이 실려 있다. 시를 고귀한 노동으로 여기는 시인의 꼿꼿함이 느껴진다. 〈뿔·1만원〉

▲12번째 카드(전 2권)=제프리 디버가 탄생시킨 전신마비 법과학자 링컨 라임 시리즈 여섯 번째 범죄소설. 신비의 타로 카드와 그에 얽힌 100년 전 할렘가의 비밀이 라임의 추리로 하나씩 풀려간다. 시리즈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출간됐다. 〈랜덤하우스·각 권 9천원〉

▲청앵(靑櫻)=장흥 출신 시인·소설가 이대흠씨의 첫 소설. 댐 건설로 수몰 예정인 '자응 유치'를 배경으로 한다. 1996년 수몰된 '장흥군 유치면'을 상징한다. 댐 건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실천문학사·9천800원〉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 여행2=클래식 전도사 금난새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그 두 번째. 1권에서 바흐, 헨델 등 고전주의나 낭만주의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낭만주의 이후를 다룬다. 비슷한 시기의 음악가 둘을 짝지어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생각의나무·1만3천원〉

▲신도 버린 사람들=저자 나렌드라 자다브는 인도의 절대적 신분제도를 거스르며 국제적 명성을 지닌 경제학자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저자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통해 불가촉천민이 감수해야 했던 배고픔과 무자비한 모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영사·1만1천원〉